

“조국, 김치국 마시지 말고 물러나라”

정양석 “민정수석이 친일파 프레임 여론 주도…한심한 작태”

김무성 “겁먹고 쫓지 말리는 건 몰상식 대응…당장 해임해야”

자유한국당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관련 한일 여론전의 선봉에 섰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폐북정치’를 통한 친일파 프레임과 반일 선동을 부추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의 ‘폐북정치’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외교적 해법인데 사법적 판결과 외교적 현실의 괴리 매울 생각을 않고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그 간극을 키우고 있다”며 “그러면서 해보겠다는 것이 고작 반일감정이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풀아가는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이 친일파 프레임, 또 애국, 이적, 이런 양분 프레임으로 여론을 주도해 왔는데 이것이 청와대 홍보방식인지 묻고 싶다”며 “최근 조국 수석이 보여준 일본 문제에 대한, 외교 문제에 대한 대응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인데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 외교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러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다름이 많이 있다. 법률가 출신 조국 수석이라고 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률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당연히 찾아야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민정수석”이라며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대통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인 인사검증에는 역대급 무능을 보인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총선과 개헌을 위한 반일 혐일(嫌日) 선동에 불과하다”며 “특히 건강보습식 주장으로 자신과 정권을 비판하는 자들을 모조리 친일파로 낙인찍고 있는데, 이는 일본 아베 정권의 선거 승리와 보통국가화 개헌을 위한 반한, 혐한 선동과 뭐가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국 수석 등 청와대와 여론은 친일감별사 노릇을 하면서 폭염에 지친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당면 사태의 해결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분명히 답변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라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일 선동으로 국민을 돌로 가르켜 파탄으로 이끈다면 정권에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석준 의원은 “가급적 개인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조국 수석은 너무 심하다. 제발 자중하고 즉각 물러나시길 정중히 요청한다”며 “조국 수석은 지난 7월4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 이후 연일 44회에 걸친 폐북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 분열시키고 무책임에 아주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도론 미래’ 토론회에서 “청와대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 문제를 풀어나갈 비책과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본분을 망각한 채 철지난 민족 감정을 악용해서 국민 편 가르기를 일삼고 한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한심한 트러블메이커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러 “마치 문 대통령을 보면 조선

말기의 선조를 보는 것 같다”며 “조국 수석처럼 ‘겁먹고 쫓지 말라’며 결사 항전을 외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몰상식한 대응”이라며 “비이성적 인동을 일삼아온 조 수석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 편가르기를 일삼고 반일 여론전을 펼치는 건 국익보호 차원이 아니라 국정 난맥 속에서 내년 총선을 이기고 보겠다는 정권보호 차원”이라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어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국민의 분노가 부메랑이 되어 그 칼끝이 고스란히 문(文) 정부의 심장인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아베 총리가 일본 보수진영의 세를 규합하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한 감정을 활용한다는 경고는 작년 말부터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일관해 오히려 아베의 작전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반일 감정에 기초해 감정적 대응을 유도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진짜 친일행위자”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여욱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조국 수석을 겨냥해 나라를 망치는 ‘조국(弔國)’이라고 비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시립국수수령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 평창 이어 광주로 ‘호남특보’서 ‘홍보특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 현장을 찾아 응원하며 흥행 몰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평창패럴림픽이 개최된 이후 외박까지 서슴치 않으며 거의 매일 평창을 찾은 선수들을 격려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아 1박2일 응원전에 돌입했다.

4·13 총선 직후 매주 호남을 방문하며 ‘반문(反文)정서’ 불식에 나섰다. ‘호남특보’에서 이제는 ‘홍보특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오후 광주를 찾은 김 여사는 경기장 분위기 띄우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 손에는 태극기 깃발을 들고, 선수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전을 펼쳤다.

특히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결승전에 오른 김서영 선수에게 시선을 때지 못했다. 여자 200m 개인혼영 결승전이 시작되고, 100m 지점 3위로 통과하자 어깨를 들썩이며 경기에 집중했다. 마지막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환성을 내는 김 선수들을 응원했다.

경기가 끝나고도 김 여사의 ‘밀착’ 스킨십은 멈추지 않았다. 출전 선수 한 명 한 명 악수하고, 등을 토닥이며 격려했다. 경기를 마친 김 선수에게는 살포시 안아 등을 두드리며 “수고했어”라고 다독여줬다.

김 여사는 22일 오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승을 일군 남자 수구 경기를 관람했다. 경기 시작 전 관중들과 함께 태극기 깃발을 흔들며 경기장을 달군 김 여사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등장하자 더욱 큰 소리로 환호했다.

경기가 시작되고, 우리 팀이 한 골 한 골 기록하는 순간 마다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환호했다. 아쉽게 골을 넣었을 때는 탄식을

하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또 상대 팀의 골을 극적으로 막아낸 순간에는 “너무 잘한다”며 기뻐하기도 했다.

경기 종료 50여 초를 남기고 우리 팀이 동점골을 득점하는 순간 김 여사는 뒤에 앉아있던 여자 선수들에게 “눈물이 날 것 같다...”고 기뻐했다.

김 여사는 이후 남자 평형 50m 예선, 여자 자유형 200m 예선, 남자 자유형 800m 예선에 관람했다. 응원단장 구호에 맞춰 선수의 이름을 호명하고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김 여사는 이번 국제 대회 지원 봉사자들과 오찬 시간을 마련해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女200m 혼영 결승 참관 사상 첫 승 남자수구 환호 靑 “자연스럽게 관심 유도”

국제 대회 현장 응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 때는 개최한 이후 거의 매일 평창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당시 김 여사는 대회 기간 세 차례나 현장에서 숙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원에 나섰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야세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대선 재수를 불신양면 지원한 김 여사가 이제는 영부인으로서 국제행사 알리미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비인기 종목들은 흥행이 저조하다”며 “김 여사가 직접 응원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 “8월 말까지 풀가동해 합의 도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간사, 홍영표 위원장, 심상정 전 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제원 간사가 손을 잡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새 위원장으로 23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공식 선임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며 홍 의원이 선임됐다.

홍 위원장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여서 그런 역할이 되는지 위원장을 맡기까지 고

민을 많이 했다”면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지정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법률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도출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거법과 정치 관련법들이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

민주-한국, 제1소위원장 기싸움…선거제 논의 난항 예고 홍영표 “한국당 요구 납득 못해” vs 나경원 “합의된 사안”

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 중진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8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 어떤 결단을 내려서 합의를 도출할 시점에 와있다. 휴가철이지만 8월 말까지 풀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8월 말까지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도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고 한국당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골자가 개혁이고 그것을 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프레임은 씌우는 순간 논의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우리가 자주 소위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투명하게 논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교체 안건

만 의결하고 소위원장 교체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정개특위 제 1소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싸움을 하고 있어 향후 선거법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소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을 다루는 소위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국당이 1소위원장에 장제원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아주 일방적 주장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정개특위 관련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할 때, 한국당 1소위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